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재연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논란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제주도는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민원을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도가 위촉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논란이 되는 현안 사업의 심의에서 거수기 노릇으로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아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사업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련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이다. 20년 가까이 수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시행돼 온 동안 환경파괴, 지역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이 난 적은 없었다.

시처럼 여겨왔다. 지난 1995년 제주도의회가 이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자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도의회 동의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후 도민사회의 요구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포함됐지만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시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편집국 25시

재선 때 약속



송은범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seb1119@ihalla.com

급기야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법원에 공론화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의 '불통'이 불을 더 지폈다. 학부모들은 공론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교육청 기자실 브리핑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등의 답변만 늘어났다. 심지어 공론화의 핵심 절차인 '도민참여단 토론회(8월 22일)'는 나흘 뒤에서야 "연기됐다"고 발표한 도교육청이다.

뉴스-in

제주도의회 '탈권위' 행보 눈길

개원 이래 처음 단상 낮춰 ○...제주도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단상을 낮추면서 '탈권위' 행보에 나서 눈길.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휴회기였던 8월 보수공사를 통해 의장 단상을 90cm에서 40cm로 50cm 낮추고, 의장석 앞 발인대도 단상 양쪽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개선. 좌남수 의장은 "의장 단상을 낮춘 만큼 도민들과도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역설.

지방재 발행은 제주도가 이미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로 1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인 상황에서 상당한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과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을 두고 제주도 예산담당 부서와 검토 중인 상태"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사설

제2공항 끝장토론 통해 새 돌파구 찾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2공항 건설과 관련 '현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한 끝장토론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원 포인트'를 제안하면서 시사됐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제2공항 문제를 불거진 도민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확충 방안으로 권고한 19개 조건 중 4개 조건(항공기 분리간격 축소·독립 평행항로 신설·교차활주로 운영·주기장 확대)입니다. 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이후 제주도와 협의해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동안 팽 막혔던 제2공항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다행입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문제 중에서도 '현 공항 활용 가능성'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명절쇠는 근로자들 임금체불 결코 안돼

올 추석에 코로나19 장기화, 기상 이변 등으로 가장 우울한 명절을 예고합니다. 자영업과 관광 관련 업의 영입부진이 심각한 수준인데 다 긴 장마, 연이은 대풍 강타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가위 명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명절나가는 최근 경기침체로 더욱 팍팍합니다. 임금마저 체불된다면 명절은 '악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각성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최근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통해 합동으로 관공공사를 비롯한 모든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나섰습니다. 도나 행정시, 산하기관의 경우 관공공사나 물품구매 대금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해 명절 이전 지급을 가능토록 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고용노동청을 통한 근로개선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의회 체불임금 해소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부고 김정은(한밭대 교수) 아버지 김해갑공 응진(前 동흥동 노인회장·향년 84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15일 21시 4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17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18일(금요일)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층 3분향실
▶장 지: 서귀포 추모공원
부인 오영자 딸 김정순 사위 배일현 정화 정성택 은조 안현준 은숙 이종철 현경 이종철 은희 이재웅
※ 연락처: 정성택 010-3699-3102 김정화 010-2968-3591 안현준 010-2936-3608 김은조 010-2690-1354

부고 부태언(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조경부장)·태진(애월읍장) 어머니 제주고씨 경생(향년 91세)께서 2020년 9월 16일 09시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19일(토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20일(일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301빈소
▶장 지: 애월읍 고성리 선영
아들 부태언 며느리 김영희 태진 허성희 호진 문인순 손자 부준혁 성혁 손녀 부소현
※ 조문은 9월 18일(금)부터 가능합니다.
※ 연락처: 부태언 010-3699-1947 부태진 010-2566-4941 부호진 010-5591-2163

부고 강창식(前 노형RC 17대 회장) 어머니 제주양씨 신(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15일 21시 5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18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19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문중 선영
남편 강평규 아들 강창식 며느리 조영자 손자 강형수 손녀 강수현
기정
※ 연락처: 강창식 010-3697-3647 조영자 010-9680-364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영우(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17일
부인 장인수 아들 양대식 며느리 이진화 딸 양성순 사위 이동규 회수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1차) 당회사는 2020년 9월 3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9월 11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원읍 함대리길 24-9, 에이층 1층 청산인 심영규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성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모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